

제 2강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멈출 것인가?

_가난한 아들 이야기

《법화경》속으로 “언젠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”

● 나의 집은 어디인가?

우리는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다가
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
심지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데도
잊어버리고 만다.